

## 마지막 기회의 기도 기간

작성일 : 2012년 6월 28일(목)

작성자 : 김영광

( 6월 20일 생중계 수요일예배 때, 마지막 기회의 기도 기간에 대한 광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때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의 기도 100일은 2000년 전 갓세마네 동산에서 나 성자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기도하라고 깨운 것과 같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후 마지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생각만 하면 너무 애가 났지만 이것이 혹여 내 주관이 아닐까 하며 계속 분별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자의 기도 마지막 날, 제 자신과 선생님과 섭리사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적으라 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성자 주님의 말씀 \*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잡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이다.  
진실로 깨달아라.  
마지막이란 말은  
그저 너희를 권면하는 말이 아니니라.  
올해 너희가 부활되고,  
이 섭리가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사랑아. 기도해야 한다.  
피곤하냐. 졸립더냐.  
너의 구원이 좌우되는 이 때,  
아직도 잘 것이냐.  
언제까지 잘 것이냐.  
너희는 하늘을 보며 날씨를 분별할 줄은 알면서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네 선생은 정말 너희 위해,  
바닥이 한강이 되도록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나의 말을 받건만...  
너희는 어찌 졸고 있더냐.  
마지막으로 깨운다.  
진정 기도하라.  
나 성자가 진정 삼위일체의 권세로 말하니  
기도하라.  
눈물로 마지막 너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

이미 나는 추수를 거의 마쳤다.  
하지만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진정 마지막 이 열차에 타는 자 있을까 하여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진정 사랑하여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줌을 깨달아라.

그가 타면 나의 마지막 구원열차는 문을 닫는다.  
노아의 때, 방주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것이었다.  
롯의 때, 소돔 땅을 벗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면 끝나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이르는 말을 심각히 듣기 바란다.  
이 마지막을 놓고,  
네 선생, 나의 이 구원 열차 타기 전  
오늘도 영계를 돌아다니며  
자고 있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깨우고 있구나.

갓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제자들을 세 번 깨웠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의 스승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끝났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너희를 마지막으로 깨운다.  
일어나겠느냐?  
함께 기도하겠느냐?  
네 선생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너희를 위해  
네 짐을 지고 가는 선생을 위해 기도하라.  
이제는 네 십자가는 네가 짊어지고 가길 바란다.  
선생과 함께 쓴잔을 마시자.  
그를 진정 사랑하라.  
그를 진실로 사랑함으로  
나를 절대 사랑하라.  
기도하라.  
진정 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네 삶이 진정 나를 최우선으로 놓을 수 있도록,  
선생을 지켜라.  
선생의 운명은 곧 네 운명과 직결이다.  
선생이 기도해야 한다.  
중심자가 대표로  
악과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그를 진정으로 지켜 주어라.

또 그의 몸 된 자를 지켜라.  
너희의 표상이다.  
섭리의 미래다.  
진정 하나 되어라.

결국엔 나를, 네 선생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 남는다.  
아무리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를 심어  
200여개 열매를 추수할 거라 생각해도  
그 때 농사가 20개 열매만 얻으면,  
그것만 얻고 끝나는 것이다.  
미완성이면, 추수할 수 없다.  
완성되고프냐?  
진정 나를, 네 선생을 사랑하라.  
진실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선생을 알아야 한다.  
또 나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사랑할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네 구원의 위치가 좌우된다.  
진실로 네 선생이 누구인지,  
나 성자 본체가 어떤 자인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노라.

진정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휴거된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  
마음 다해, 심정 다해 깊이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진정 신부의 표상이기에,  
나 성자 본체가 쓰는 유일한 육신이기 때문에  
정확히 깨닫고, 네 삶 속에서  
그러한 깨달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한다.

진실로 마지막 내 눈물의 간구함을 알아 다오.  
기도해야 나의 말씀이  
진정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  
이 시대 나의 말씀은 인봉의 말씀이다.  
네가 휴거되기 위한 인봉의 말씀이다.  
기도치 않으면 올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선생이 얼마나 심하게  
이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지,  
나 성자가 얼마나 애타게

이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지  
그 심정과 마음, 그 말씀의 핵과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회개하라.  
남은 너의 악의 그 모든 근성을 제하여 버려라.  
마지막으로 깨끗이 해야 할 때다.  
악은 선과 공존할 수 없다.  
선이 악을 이기려면 악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 회개함으로 네 속의 악을 완전히 버려라.  
이 마지막 기회의 때에  
마지막으로 진정 버리길 원하노라.  
그리하여 완전한 신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의 기도 기간.  
말씀으로 휴거의 길을 깨닫고,  
나를 절대 사랑함으로 휴거의 길을 따라가  
마지막 종착역인 나와 선생을 만나자.  
절대 나를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절대 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랑치 않으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니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먼저 나를 사랑하라.  
결코 이 마지막 기회 기도 기간을  
형식, 외식으로 보내면 안 된다.  
너 자신을 마지막 구원시킬 수 있는 기간임을  
절실히 깨닫길 바라노라.

마지막 너의 중심을 결정하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냐. 세상이나.  
네 선생의 간구로 마지막 연장된 이 기간,  
너희는 결정하여라.

나로 결정한 자들아.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지금 돌아보면 롯의 아내같이 된다.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나와 통하자.  
선생과 통하자.  
기도와 말씀만이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진정, 이 때 시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기도로 나와 통하자.

통해야 휴거될 수 있다.  
내 심정, 내 마음 알아야 휴거될 수 있다.

정녕 네 운명이 좌우되는 이 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하길 바라노라.  
앞으로 천년역사 동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때이다.

100% 네 마음의 중심을 정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100% 시대 보낸 자와  
나 성자를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며  
100% 네 삶을 나와 네 선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라.  
깨달아라.  
이 시대 역사와 네 선생 그리고 나에 대해...

또한 100% 네 선생이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여라.  
100% 네 형제, 자매를  
나와 네 선생으로 보고 사랑하여라.  
100% 내 말씀을  
인생의 답이라 믿고 확신하며 행하여라.  
이것이 네가 맺어야 할 열매이다.

사랑하면, 나와 네 선생을 진정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오직 나를 진실로 사랑한 자만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랑한다. 너의 신랑 성자 주니라.